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연구

서은아* · 김형주** · 김미형***

|| 차례 ||

- I. 머리말
- II. 공공언어 진단 기준 설정
- III. 공공언어 진단 방법 및 절차
- IV. 공공언어 진단 결과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14년 2~3월 두 달간 충남도청 17개 실·국·원 공무원이 작성한 63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오류 항목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괄적인 진단 항목을 일부 수정하였다. 즉,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진단 항목을 세분화한 것이다. 그 결과,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띄어쓰기 표현, 명사화 표현, 우리말다운 표현, 이해하기 쉬운 표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기관 공공언어 사용 실태 진단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은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 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단을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단 결과를 단순히 순위나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고빈도 오류 항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재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교수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개발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공언어, 띄어쓰기 표현, 명사화 표현, 우리말다운 표현, 이해하기 쉬운 표현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여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청이 자체적으로 도청 산하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에 1차 평가를 의뢰한, 2014년 2~3월 두 달간 충남도청 17개 실·국·원 공무원이 작성한 63건의 보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공언어는 사회언어학과 언어정책론 분야에서 논의가 시작된 개념으로, 공문서 생산 주체와 사용 영역을 놓고 넓은 의미의 정의¹⁾와 좁은 의미의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언어를 좁은 의미로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적인 언어”로 정의를 내린다. 이러한 관점은 이인제(2009:30), 민현식 외(2010:3), 강남욱 외(2011:127), 전영옥 외(2013:242)에서도 취하고 있으며, 공공언어가 일반 국민의 언어 사용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1) 남영신(2009:69, 2010:65)은 공공언어를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도 일반인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로, 조태린(2010:383)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정의한다. 즉, 공문서 생산 주체가 민간이라도 사용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라면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로 규정한다.

II. 공공언어 진단 기준 설정

국립국어원은 2009년 5월 ‘공공언어지원단’을 발족한 이래로 2014년 현재까지 매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진단 기준 혹은 진단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 가운데 민현식 외(2009)는 중앙기관 37곳, 지방자치단체 25곳, 병원 2곳, 은행 2곳, 우체국 1곳의 민원서식과 안내문, 게시문 등을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으로 나누어 어문 규정 준수 여부와 어휘 사용의 적정성 및 문장의 문법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민현식 외(2009:28)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민현식 외(2009)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표기 차원	맞춤법 규정 및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경우
	띄어쓰기 규정에서 벗어난 경우
단어 차원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
	틀린 용어를 사용한 경우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경우
	난해한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문장 차원	조사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명사화(음, 기의 남용, 반복, N병렬 남용)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
	관형화(관형형 어미의 반복)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
	부사화(대등·종속 접속, 인용, 어미 호응)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성분의 호응 관계(주술, 목술)가 맞지 않는 경우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가 부정확하게 사용된 경우
	번역 투 표현(~에 있어서)이 사용된 경우
텍스트 차원	소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적절한 문단 연결(지시어, 접속어)이 이루어진 경우
	과도한 생략이 일어난 경우
	비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진 경우

민현식 외(2010)는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언어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언어의 생산자(공무원)와 수요자(국민)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15개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한 다음, 모두 7차례에 걸쳐 진단 기준안을 수정²⁾하여 최종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공언어 진단 기준이 어법의 정확성만을 평가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공언어의 소통성을 고려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민현식 외(2010:280, 2011:17)의 진단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민현식 외(2010, 2011)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구분관 외(2012)와 최홍열 외(2013)는 진단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 실무자의 자문과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 기준의 명칭과 문장 유형을 결정하고, 진단 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현식 외(2010)를 수정하여 정확성 항목은 모두 가져와 진단하되, 소통성 항목에서는 용이성만을 가져와 진단했다. 이는 소통성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소통성을 점검하기에 앞서 범용 기준인 정확성부터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진단 과정은 물론이고 공공언어 진단 지표(Public Document Diagnosis Index, PDDI)를 산정하는 방식도 한결 단순해졌다. 이는 평가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진단 대상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분관 외(2012:19)와 최홍열 외(2013:35)의 진단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구분관 외(2012), 최홍열 외(2013)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2.1. 용이성	2.1.1.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그런데 민현식 외(2010, 2011)를 비롯하여 구분관 외(2012), 최홍열 외(2013)의 진단 항목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할 때,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들을 진단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하위 항목들을 하나의 상위 항목으로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표기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민현식 외(2011)에서는 ‘띄어쓰기’ 항

목에서 과도한 붙여 쓰기를 통해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를 중심으로 명사와 명사를 붙여 쓰는 띄어쓰기 오류를 진단하지 않는다³⁾. 이러한 유형의 띄어쓰기 오류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을 근거로 오류를 진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글맞춤법 규정보다 관례나 자의적인 해석을 중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실례로 “중로 1,2,3가”처럼 쉼표 뒤의 띄어쓰기도 진단하지 않는데, 이 또한 문장부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더욱이 표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민현식 외(2011)에서는 부적절한 문장 성분의 생략 및 호응, 접속 오류, 조사의 오용, 부적절한 어미 사용, 동일 어휘 반복, 어순 오류 등을 ‘어법에 맞는 문장 사용’ 항목으로 묶어서 진단하는데, 이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여러 하위 항목의 오류 실태를 하나의 상위 항목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상위 항목의 점수가 낮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도한 명사화 구성 및 관형화 구성, 불필요한 사동 및 피동 표현, 번역투 표현, 어색한 한자 표현 등을 ‘우리 말다운 문장 표현’ 항목으로 묶어서 진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민현식 외(2010, 2011)를 참고한 구분관 외(2012)와 최홍열 외(2013)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공공언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3) 이는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국어기본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공공언어로서의 품위를 저하시킨다는 관점”이 아니라 “규범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은 있으나 일반 국민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의미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공공언어의 용이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관점”(민현식 외, 2010:87)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오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단 항목⁴⁾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민현식 외(2009)를 중심으로 사전 진단을 거쳐 점검이 필요한 세부 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진단 항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공공언어 진단 항목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맞춤법 중에 소리에 관한 규정과 형태에 관한 규정을 지켰는가?
		1.1.2. 한글맞춤법 중에 띄어쓰기 규정을 지켰는가?
		1.1.3. 한글맞춤법 중에 문장부호 규정을 지켰는가?
		1.1.4.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5. 외래어표기법 규정을 지켰는가?
		1.1.6. 오자나 탈자는 없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문장 성분은 바르게 호응하는가?
		1.2.2. 문장 성분의 순서와 생략, 중복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1.2.3. 명사화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1.2.4. 관형화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1.2.5. 우리말다운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1.2.6. 어휘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2. 소통성	2.1. 표현의 용이성	2.1.1.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III. 공공언어 진단 방법 및 절차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충남도청은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

4)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 외(2009, 2010, 2011)에서도 ‘띄어쓰기’ 항목이 ‘한글맞춤법’ 항목에 포함되는 하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띄어쓰기 오용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상위 항목에서 따로 분리하여 진단하고 있다.

어 두 차례에 걸쳐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상반기 1차 평가분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보충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하반기 2차 평가를 통해 동일한 오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료 수집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 (1) 충남도청이 각 실·국·원별로 제출한 2~6건의 보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2) 보도 자료는 2014년 2~3월 두 달간 작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분석 대상의 평균 음절값인 600음절을 기준으로 오류 횟수를 계산한다.
- (3) 동일한 오류는 1회로 계산한다.

이 연구는 진단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 개선할 항목을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석 대상의 분량을 일률적으로 통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도 자료 중에는 600음절에 미달하는 것도 있고, 초과하는 것도 있다⁵⁾. 각 진단 항목별 진단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공공언어 진단 기준

1.1.1. 한글맞춤법 중에 소리에 관한 규정과 형태에 관한 규정을 지켰는가?	
· 된소리 규정	· ㄷ 받침소리 규정
· 두음법칙 규정	· 사잇소리 규정
· 준말 규정	

5) 63건 중 600음절 이하 자료는 31건이고, 600음절 이상 자료는 32건이다. 600음절 이하 자료는 그대로 사용했고, 600음절 이상 자료는 600음절 이하로 절사하였다.

1.1.2. 한글맞춤법 중에 띄어쓰기 규정을 지켰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명사 띄어쓰기 · 명사와 명사 띄어쓰기 · 접사 띄어쓰기 · 기호와 글자 띄어쓰기
1.1.3. 한글맞춤법 중에 문장부호 규정을 지켰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침표 사용법 · 따옴표 사용법 · 이음표 사용법 · 쉼표 사용법 · 묶음표 사용법
1.1.4.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1.5. 외래어표기법 규정을 지켰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 외국어 어휘 표현 · 인명이나 지명 표현
1.1.6. 오자나 탈자는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자 · 탈자
1.2.1. 문장 성분은 바르게 호응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관계
1.2.2. 문장 성분의 순서와 생략, 중복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순서 ·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생략 ·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반복
1.2.3. 명사화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명사화 표현
1.2.4. 관형화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관형화 표현
1.2.5. 우리말다운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색한 번역투 표현
1.2.6. 어휘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를 맥락에 맞게 바르게 사용 · 불필요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2.1.1.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외래어 · 어려운 한자어

IV. 공공언어 진단 결과

<표 4>의 진단 항목과 <표 5>의 진단 기준에 따라 충남도청 17개 실·국·원별 보도 자료 63건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공공언어 진단 결과 유형별 오류 빈도

대분류	중분류	빈도(개수)	비율(%)
정확성	표기의 정확성	953	77.79
	표현의 정확성	226	18.44
소통성	표현의 용이성	46	3.75
합 계		1,225	100

진단 결과, 정확성의 오류 빈도는 1,179회(96.24%)로 나타났고, 소통성의 오류 빈도는 46회(3.75%)로 나타났다. 정확성 항목 중에는 표기의 정확성 오류 빈도가 953회(7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글맞춤법 규정 중에 제3장의 소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건은 전체 63건 중 단 한 건도 없었고, 제4장의 형태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건도 63건 중 단 1건(사잇소리 규정 오류) 1회에 불과했다.

한글맞춤법 규정 중에 제5장의 띄어쓰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건은 전체 63건 중 63건 875회로 나타났다. 각 문건당 평균 13.8개꼴로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난 셈인데, 대체로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오인한 경우(0.91%)보다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오인한 경우(99.08%)가 많았다. 띄어쓰기 오류 유형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유형별 띄어쓰기 오류 빈도

띄어쓰기 유형	빈도(개수)	띄어쓰기 유형	빈도(개수)
명사와 명사	679	부사와 부사	3
기호	111	대명사와 명사	3
의존명사	56	관형사와 명사	1
두 단어로 오인	8	동사와 명사	1
접사	7	부사와 동사	1
조사	4	날짜	1

- (1) ㄱ. 충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 공모(홍보협력관실, 2014. 3. 12.)
 ㄴ. 정기회의 개최…도지사와의 대화(정책기획관실, 2014 2. 10.).
 ㄷ. ▲당진 치즈만들기 등 목장체험(홍보협력관실, 2014. 2. 23.)

〈표 7〉의 유형별 띄어쓰기 오류 빈도를 보면 예문 (1ㄱ)의 ‘지역언론’이 나 ‘지원사업’처럼 명사와 명사를 붙여 쓰는 띄어쓰기 오용 사례가 679회로 가장 많았고, 예문 (1ㄴ, ㄷ)의 ‘개최…도지사와의’나 ‘▲당진’처럼 기호(문장 부호 포함) 띄어쓰기 오용 사례가 111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항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조사에서 진단이 제외된 것으로 ‘가독성’ 등의 이유를 들어 오용을 묵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띄어쓰기 오용 사례이다.

그런데 명사와 명사를 붙여 쓰는 관행을 용인하면 ‘바로알기’나 ‘새역사’, ‘우리술’처럼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붙여 쓰는 일은 물론이요, ‘다음날’처럼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말까지도 붙여 쓰는 일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의미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진단 결과에 포함해야만 한다.

- (2) ㄱ. 이화여고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여성정책관실,

2014. 3. 24.)

- 나. 기관간 관계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혁신관리담당관, 2014 3. 23.)
- 다. ‘감사신 지적사례별 회계분야 교육’이 1시간씩 각각 진행된다(보건행정과, 2014. 3. 27.)
- 리. 사용하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윈도우 7 등 양질의 사양으로 제공할 계획(정보화지원과, 2014 3. 26.).
- 로. 국비부족액 107억원 배정신청(축산과, 2014. 3. 25.)
- 비. 6월말과 8월말에 각각 실시하는 일본어와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공무원교육원, 2014 3. 12.).
- 사.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의 협조 하에 전체일정을 진행했다(관광산업과, 2014. 3. 26.)
- 오. 이중 30%는 사망하고 회복하더라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게 된다(보건환경연구원, 2014 3. 26.)
- 자. 50여년 간 내포제시조의 체계적 보존·전승에 기여해 왔다(문화재과, 2014. 3. 9.)
- 차. 소통·회합행정을 30여회에 걸쳐 추진한다(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2014 3. 13.).
- 카. 보령항 등 3개항 시설 대상(해양항만과, 2014. 2. 19.)
- 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674대의 PC를 보급한바 있으며(정보화지원과, 2014 2. 10.).
- 파. ‘충남도의 주민자치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자치행정과, 2014. 3. 26.)
- 하. 지역내 공한지, 도심하천 등(환경관리과, 2014. 3. 24.)

의존명사 띄어쓰기 오류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예문 (2ㄱ)의 ‘명(名)’으로 총12회 사용되었다. 관계를 나타내는 예문 (2나)의 ‘간(間)’은 10회, 시간을 나타내는 예문 (2ㄷ)의 ‘시(時)’는

8회, 곳이나 일을 나타내는 예문 (2ㄷ)의 ‘데’는 7회,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예문 (2ㄹ)의 ‘원’은 6회, 기간의 끝을 나타내는 예문 (2ㅂ)의 ‘말(末)’은 3회,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을 나타내는 예문 (2ㅅ)의 ‘하(下)’는 2회, 무엇을 하는 동안을 나타내는 예문 (2ㅇ)의 ‘중(中)’은 1회, 해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예문 (2ㅈ)의 ‘년(年)’은 1회, 횟수를 나타내는 예문 (2ㅊ)의 ‘회(回)’는 1회, 항목을 나타내는 예문 (2ㅋ)의 ‘항(項)’은 1회, 일의 방법이나 방도를 나타내는 예문 (2ㅌ)의 ‘바’는 1회, 추측을 나타내는 예문 (2ㄹ)의 ‘것’은 1회, 일정한 범위의 안을 나타내는 예문 (2ㅎ)의 ‘내(內)’는 1회가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달러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의 띄어쓰기 오류도 1회 발견되었다.

- (3) ㄱ.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환경정책과, 2014. 3. 27.)
 ㄴ. 노후화 된 시설과 협소한 부지(식의약안전과, 2014. 3. 25.)
 ㄷ. 동남아 및 유럽지역의 많은 바이어 들이 초청될 예정이다(농산물유통과, 2014. 3. 16.)
 ㄹ. 대 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서해안 산업벨트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새로운 장(예산담당관실, 2014. 3. 17.)
 ㅁ. 충남 서북부지역 신 산업지대 물류비 절감 효과(예산담당관실, 2014. 3. 17.)

접사 띄어쓰기 오류는 총7회 사용되었는데, 명사 뒤에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예문 (3ㄱ)의 접미사 ‘하다’는 2회, ‘명사 뒤에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예문 (3ㄴ)의 접미사 ‘되다’는 2회, 복수’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 (3ㄷ)의 접미사 ‘들’은 1회, ‘그것을 상대로 한’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 (3ㄹ)의 접두사 ‘대(對)’는 1회, ‘새로운’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 (3ㅁ)의 접두사 ‘신(新)’은 1회 사용되었다.

- (4) 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도시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신도시정책과, 2014. 3. 18.)
 - ㄴ. 올해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피해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해안 유류사고지원과, 2014. 3. 25.)
 - ㄷ. 혼수상태로 진행되며 이중 30%는 사망하고(보건환경연구원, 2014. 3. 26.)
 - ㄹ. 다함께 뜻 모아 일자리창출 사업 ‘시동’(일자리경제정책과, 2014. 3. 26.)
 - ㅁ. ‘14.2월 설립된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2014. 3. 26.).

이 외에도 예문 (4ㄱ)처럼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오인한 경우가 8회(한자리, 중간중간에, 지난해, 끌어올리다, 뿌리내리다, 바로잡다, 뜻깊게) 사용되었고, 예문 (4ㄴ)처럼 조사 띄어쓰기 오류 4회(보다, 밖에, 이다), 예문 (4ㄷ)처럼 대명사와 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3회(우리술, 우리가족, 이중), 예문 (4ㄹ)처럼 부사와 부사의 띄어쓰기 오류 3회(다함께), 예문 (4ㅁ)처럼 낱짜 띄어쓰기 오류 1회가 사용되었다.

- (5) ㄱ.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군별 산·학·관 일자리지원협의체 운영(일자리경제정책과, 2014. 3. 26.)
 - ㄴ. ▲도시 이미지를 고려한 계획 보완 ▲기관·단체 유치(신도시개발지원과, 2014. 3. 6.)
 - ㄷ.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축산과, 2014. 3. 25.)

한글맞춤법 규정 중에 문장부호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건은 전체 63건 중 16건 총25회로 나타났다. 그중 예문 (5ㄱ)의 가운뎃점 오용 사례는 11건

15회, 예문 (5ㄴ)의 쉼표 오용 사례는 4건 9회, 예문 (5ㄷ)의 마침표 오용 사례는 1건 1회가 사용되었다.

(6) ㄱ.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저출산고령화대책과, 2014. 3. 17.)

나. 주요 브랜드쌀의 원료곡으로써 최고품종 쌀을 지속적으로 재배(농업기수원, 2014 3. 23.)

표준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건은 전체 63건 중 20건 총 25회로 나타났다. 그중 직접 인용 조사와 간접 인용 조사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23회로 가장 많았고, ‘-로씨’와 ‘-로써’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2회 사용되었다.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건은 전체 63건 중 1건 1회로 나타났고, 오자나 탈자를 사용한 문건은 전체 63건 중 17건 26회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표기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오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표기의 정확성 오류 빈도

오류 항목	빈도(개수)
1.1.1. 한글맞춤법 중에 소리에 관한 규정과 형태에 관한 규정을 지켰는가?	1
1.1.2. 한글맞춤법 중에 띄어쓰기 규정을 지켰는가?	875
1.1.3. 한글맞춤법 중에 문장부호 규정을 지켰는가?	25
1.1.4.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25
1.1.5. 외래어표기법 규정을 지켰는가?	1
1.1.6. 오자나 탈자는 없는가?	26

(7) ㄱ. 이날 강좌는 학교폭력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병준 참행복교육

원장의 ‘학교폭력·인터넷중독 예방과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여성정책관실, 2014. 3. 25.)

- ㄴ. 중간관리자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토론회(혁신관리담당관, 2014 3. 23.)

예문 (7ㄱ)처럼 문장 성분의 호응이 바르지 않은 문건은 전체 63건 중 24건 37회로 나타났고, 예문 (7ㄴ)처럼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생략이나 중복이 나타난 문건도 전체 63건 중 23건 37회로 나타났다.

- (8) ㄱ.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고(국제통상과, 2014. 2. 24.)
- ㄴ. 수산국장의 승진에 따라 그동안 직무대리 상태였던(총무과, 2014 3. 13.)

아울러 예문 (8ㄱ)처럼 “국익 극대화 방향(>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처럼 명사화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문건은 전체 63건 중 38건 83회, 예문 (8ㄴ)처럼 “수산국장의 승진에 따라(>수산국장이 승진함에 따라)”처럼 관형화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문건은 전체 63건 중 17건 26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ㄱ. 분임별로 토의시간을 가진 뒤 발표(자치행정과, 2014. 3. 26.)
- 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문화산업과, 2014 3. 2.)

예문 (9ㄱ)처럼 우리말다운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문건은 전체 63건 중 26건 41회, 예문 (9ㄴ)처럼 어휘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문건은 전체 63건 중 2건 2회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표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오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표현의 정확성 오류 빈도

오류 항목	빈도(개수)
1.2.1. 문장 성분은 바르게 호응하는가?	37
1.2.2. 문장 성분의 순서와 생략, 중복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37
1.2.3. 명사화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83
1.2.4. 관형화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26
1.2.5. 우리말다운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41
1.2.6. 어휘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2

〈표 9〉에서 보면 표현의 정확성 항목과 관련하여 명사화 표현을 남용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 투 문장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마인드 교육 및 소통을 강화할 것(보건행정과, 2014. 3. 27.)

예문 (10)처럼 행정용어 순화어 사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을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표현의 용이성 오류 빈도

오류 항목	빈도
2.1.1.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46회

V. 맺음말

공공언어는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적인 언어'이므로 표기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은 물론이요,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의 용이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도청 실·국·원별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1.1.2.항목의 띄어쓰기와 1.2.3.항목의 명사화 표현, 1.2.5.항목의 우리말다운 표현, 2.1.1.항목의 이해하기 쉬운 표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하거나 교육을 실시한다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립국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여 순위와 등급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없다. 실제로 충남도청의 경우 2011년 진단에서는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2012년 진단에서는 3등급 기관으로, 2013년 진단에서는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진단 결과와 연계된 맞춤형 교재 보급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 효과를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오류 항목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진단 항목을 수정하였고, 이를 통해 맞춤형 교재 개발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점은 단계적으로 진단 및 개선이 이루어질수록 진단 항목을 최대한 세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차 년도에는 표기의 정확성을 진단하고, 2차 년도에는 표현의 정확성을 진단하는 식으로 세분하는 것이다. 아울러 진단 결과를 순위나 등급으로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재 개발 및 교안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옥·박재현, 『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123-156.
- 권재일,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2010, pp.5-17.
- 구본관 외,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진단』, 국립국어원, 2012.
- 남영신, 『공공언어 순화 추진과 제도 확립 방안』, 『국립국어원 공공 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9, pp.67-83.
- 남영신, 『공공언어의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119, 2010, pp.371-399.
- 민현식 외,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2009.
- _____, 『공공 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2010.
- _____, 『2011년 행정기관 공공언어진단』, 국립국어원, 2011.
- 서은아,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2011, pp.37-59.
- 이인제, 『공공언어로서 교육 언어의 사용 실상과 개선 정책』, 『국립국어원 공공 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9, pp.27-65.
- 전영옥·서은아·양영하·구현정, 『공공언어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사회언어학』 22-1, 사회언어학회, 2013, pp.241-270.
- 조태린,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2010, pp.379-405.
- 최홍열 외,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국립국어원, 2013.

Abstract

Research on the Different Use of Public Language of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Seo, Eun-A · Kim, Hyeong-Ju · Kim, Mi-Hyoung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plan to effectively improve the use of public language by public officers of the Chugnam provincial government by diagnosing the usage. To this end, 63 press releases prepared by 17 offices/bureaus/division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during March 2014. The analysis found that the officers had relatively poor understanding of word spacing, (non-case marker) nominal expressions. Natural korean style expressions and easy to understand expressions. Second, diagnosing items were modified to specifically identify misuses or errors in their use of public language in order to help developing customized education materials and programs.

To improve the aforementioned diagnosis, diagnosing items should be further specified as such diagnosis and improvement gradually advances. For example, spelling accuracy is diagnosed in the first year, and then expression accuracy in the second year. Also, the results should be used not only for grading, but for developing education materials and programs.

Key Word : public language, word spacing expressions, (non-case marker) nominal expressions, natural korean-style expressions, easy to understand expressions

서은아

소속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주소 : (330-7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송백관 322호

전화번호 : 041-550-5459 /010-3274-4993

전자우편 : daye4994@smu.ac.kr

김형주

소속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교수

주소 : (330-7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송백관 212호

전화번호 : 041-550-5391/ 010-9053-4990

전자우편 : poribap@hanmail.net

김미형

소속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주소 : (330-7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송백관 313호

전화번호 : 041-550-5118 / 010-5389-8218

전자우편 : mekim@smu.ac.kr

<p>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p>
--

